

DMZ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 ‘안보관광’, ‘평화관광’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이웅규*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한 한반도 DMZ 평화관광 관련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했던 정부 정책과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안보관광이 아닌 평화관광의 틀 차원에서 DMZ관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국가나 해당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DMZ관광의 지속 가능한 관리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평화관광에 관한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중요하지만, 내국인의 DMZ와 접경지역에 대한 방문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보관광이 아닌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DMZ관광, 안보관광, 평화관광, 패러다임 전환, 소극적 평화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부교수, unikorea2024@naver.com

I. 서론

본 연구는 최근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한 한반도 DMZ 평화 관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했던 정부 정책과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반도 DMZ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독보적 유산이다(김창환 2020). 한반도 DMZ가 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각인되기도 했으며, 2018년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싱가포르 센토사섬), 2019년 2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베트남 하노이), 2019년 6월 30일 남북미정상회담(비무장지대 남측), 남북정상회담 등이 개최된 때에는 DMZ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위의 일련의 정상 간 만남이 한반도 DMZ를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는 못했다.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이슈들도 작용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핵 무력 정책의 법제화’로 인하여 이를 실현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법제화한 핵 무력정책은 “핵 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하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핵 무력 지휘의 절대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핵 무력정책 법령은 “국가 핵 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유사시 타격을 받게 되면 그것이 재래식 공격이든 핵 공격이든 핵 공격 작전계획이 자동 시행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북한의 법제화 조치는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 데 우선순위를 둔 핵 운용 교리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김환용 2022).

결국, 현재의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 상황에서 바라보면, DMZ 관광의 미래 전략적 시사점 중 하나는 ‘관광’은 절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광이라는 사회 현상은 ‘평화’라는 대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 등 극도의 불안감이나 위협이 내포된 지역을 방문하는 어리석은 관광객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안보관광이라는 용어도 단순 이익을 추

구하는 사업자나 무엇인가 명분을 만들어 내야 하는 지도자들과 그 주변의 관련학자들이 양산해낸 ‘시대의 언어’¹⁾이다. 그런 의미에서 DMZ관광 현상을 분석하면, 극도의 긴장감과 극한의 공포감과 적막감이 흐르는 DMZ에 관광이라는 용어를 덧붙여 정치적이든 사업적이든 간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안보관광에 접근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이는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제1순위로 두어야 하는 정부 당국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안보관광이라는 상품이 버젓이 시중에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되는 점은 정치적이든 사업적이든 간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과거처럼 안보관광이라는 편향된 관광의 틀에서 벗어나야 관광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안보관광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다. 현재 관광 산업계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DMZ 접경지역의 관광을 안보관광에 제한하지 않고 관광객의 변화 욕구에 맞추어 생태관광, 농촌관광, 스포츠 관광, 역사관광, 문화관광 등 관광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금강산관광이 장기간 중단이 되고 남북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아 현재 안보관광 상품은 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부터 멀어져 정부로부터 지원 등을 받거나 정부 차원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 이상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 되었다. 본 연구자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안보관광을 이제는 평화학 연구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고자 한다. 즉, 안보관광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제도 구축과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실패로 ‘적극적 평화’를 끌어내지 못한 제도적 장치 구축의 미흡이라고 분석한 신용석(2011)의 연구 외에 안보관광이 아닌 평화관광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한 ‘용어 선택의 실패’를 추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안보관광이 아닌 평화관광의 틀 차원에서 DMZ관광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안보관광의 용어는 복측을 자극하거나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이에 복측의 도발을 억제하고 ‘소극적 평화’라도 끌어낼 수 있는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1) 본 연구자는 ‘시대의 언어’를 ‘특정 시각이나 가치관만이 정당한 것처럼 취급해 편을 가르고, 사안의 본질을 볼 수 없도록 하고 공론의 장을 닫게 만드는 나쁜 언어’라고 정의한다.

도모해야 한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 1996)은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단순히 가시적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 사라져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적극적 평화’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 결과에 집착하는 ‘소극적 평화’보다는 ‘적극적 평화’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를 ‘관광과 평화’의 관계에 적용해서 분석하면, ‘관광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긍정론적 관점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시각이다. 즉,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 관광교류가 행해지면서 서로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국가 간 국민의 교류로 인하여 무력 충돌이 잦아들거나 사라지고 긴장 완화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이다. 이는 갈통이 주장한 ‘가시적 폭력(무력)의 부재 상태’인 ‘소극적 평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교류가 적대 국가나 분쟁 지역 간 정치·외교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즉, 사회 구조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 평화’ 상태가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면 “예”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금강산관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군함이었던 고성항(장전항)과 군사 기지였던 해금강이 개방되어 우리 국민의 군사분계선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고, 금강산관광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제고되는 등 금강산관광이 ‘소극적 평화’를 가져다주었지만, 실질적인 ‘적극적 평화’ 상태인 남북의 통합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등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심지어는 금강산관광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고, 남북 간의 제1연평해전이나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것 등을 고려한다면 금강산관광은 갈통이 주장한 ‘소극적 평화’(폭력의 부재)조차도 구축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햇볕정책’을 추진해온 남측 정부의 노력으로 그 평화가 위태롭게 유지되어 오다가 금강산관광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평화는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도 본 연구는 안보관광 관련 연구를 분석하면서 왜 평화관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국가나 해당 접경지역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 DMZ관광의 지속 가능한 관리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평화관광에 관한 명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도 중요하지만, 내국인의 DMZ와 접경지역 방문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안보관광이 아닌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이 한반도 DMZ관광과 평화관광 연구와 연계되어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세계적인 평화관광의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보고서, 단행본, 신문 기사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당 문헌을 고찰했다.

II. 안보관광의 논의

1. 안보관광의 정책 효과

전효재(2016)는 안보관광을 전쟁, 죽음, 재난, 재해와 관련된 현장과 역사적 사실을 탐방하는 관광 활동을 뜻한다고 했다. 따라서 안보관광 자원이란 안보 영역에서는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관광 영역에서는 관광객의 변화하는 관광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오수경 2015). 즉, 안보관광은 전적지와 민통선 일대의 전투 현장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상황을 둘러보고, 사람이 드나들지 못해 잘 보전된 자연 및 인문 경관을 안보관광 자원으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전후 세대에게 올바른 안보의식과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관광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특색 있는 경험을 제공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다.

인천 강화에서부터 경기도 파주, 연천, 포천, 강원도 철원, 인제, 양구, 고성 등은 안보관광이 발달한 대표적인 접경지역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접경지역이 안보관광과 관련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방향으로는 기존 DMZ 중심의 전적지 방문 관광, 국가 주도의 평화안보관광을 추진하여 학생과 국민에게 안보의식 고취, 접경지역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체험 복합테마관광, 세계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지오투어리즘 적용 자연생태체험관광,

COVID-19 이후 덜 붐비는 지역으로의 당일치기형 일상생활관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보관광은 다크투어리즘적인 요소와 함께 역사교훈 목적이 강하며, 최근 모든 세대가 함께 인식해야 할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신애경·이혁진 2022).

하지만, 경기도(2021), 박수지·정철(2021), 정대영·한석호(2021)의 지적처럼, DMZ 잠재관광객의 DMZ 방문 시 위험 지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된 바와 같이 한국인에게 낙관적 편견인 안보불감증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김도영(2016)이 DMZ관광의 정서적 이미지 척도 개발을 위한 전문가조사 및 실증연구를 통하여 DMZ관광의 7개의 정서적 이미지 요인(특별한, 가치 있는, 매력적인, 역사적인, 흥미로운, 불안한, 강렬한)을 도출한 데서도 드러났듯이 안보관광이 호기심 등의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관광에 있어 나타나서는 안 될 부정적 의미의 긴장감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가는 관광에서 긴장감만 조장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부정적 의미의 안보관광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용어 변경 등의 노력이라도 시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에서 관광목적지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광객의 다양한 변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자원의 발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관광 자원인 비무장지대, 즉 DMZ를 친환경 생태 관광지와 안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연구와 정책접근이 많은 이유가 바로 DMZ의 관광 자원으로서의 매력성 때문이다.

한편, 안보관광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그것이 특수한 상황에서 연출될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 매력물(attractions)이며, 다른 관광 자원과는 뚜렷하게 차별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소현·김병헌 2015). 특히, 관광상품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관광’을 남북교류협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DMZ 안보관광산업의 진흥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안보관광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은 상이(相異)하지만, 안보관광의 추진 의지만큼은 남북 모두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안보의 중요성이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안보와 관광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안보관광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도 안보관광의 의미와 종합적인 내용 그리고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박숙진·김태현(2014)은 병영체험 및 안보관광 개발, 관광정책과 안보 인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경합모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준거를 제공하였다. 201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양구, 철원, 연천군 접경지역 일원에서 병영체험 및 안보관광을 경험한 방문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병영체험 및 안보관광 개발에 의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정책으로서의 지원제도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영체험 및 안보관광 개발 시 접경지역 관광인프라의 네트워크화와 체험형-체류형-체감형 안보관광 콘셉트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내국인 관광객 중 안보관광 자체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많지 않다는 의미이며, 안보관광에 참여하는 자발적 내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안보의식 고취 프로그램이나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가한 경우라는 분석이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신기한 DMZ에 관한 호기심 차원의 자발적 관광이 많으며, 신기성, 모험성, 정보성, 평화 소중성 등 여러 가지 동기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관광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의 참여 동기가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심성우 외 2009). 이는 김난영(2010)의 지적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DMZ 안보관광상품이 안보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관람 위주 관광 형태를 지녔으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대부분이 휴전선과 판문점을 관람하고, 그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아시아 관광객보다는 미주나 유럽 관광객들의 DMZ 안보관광 참여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2. 안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관광의 이용

안희자(2018)는 최근 우리 사회의 기억에 대한 논의가 관광 분야에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크투어리즘은 죽음이나 비극, 고통의 장소를 방문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관광을 말한다.

다크투어리즘은 안보를 중요시하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효용을 갖는다. 즉, 다크투어리즘의 현장이 안보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우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있었던 반공교육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무모함과 결점을 드러내어 교육에 활용하는 수단으로써 유용했다. 결국, 문화적 기억의 관점에서 DMZ에 남아 있는 안보의 위협을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관광경험 본질을 만족시키기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안보관광에 참여한 관광객의 관광 동기와 무관하게 안보관광 상품은 DMZ 안보관광에 관한 6·25전쟁의 유산으로 냉전의 역사를 상징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여주고 국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이에 관해 안희자(2018)는 DMZ 관광상품을 다크투어리즘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분류하면서 DMZ 안보관광에 참여한 14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고, DMZ 안보관광 경험의 본질을 구성하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관광경험의 본질은 크게 4개 주제와 15개의 하위범주, 76개의 변형된 의미 단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관광경험을 구성하는 4개 주제와 15개 하위범주에 관하여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상황적 구조를 기술하고,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관광경험을 일반적 구조로 기술한 결과, DMZ 안보관광 경험을 구성하는 첫 번째 주제는 ‘경계의 이중성 체험’이었다. 경계의 이중성 체험은 ‘통제된 장소에 대한 호기심과 신기성’, ‘대치상황의 긴장감과 단절된 현실 인식’, ‘영향을 주고받는 가까운 거리 인식’으로 구성된다. 관광경험은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며, 이때 장소는 기억매체로 기능하여 관광객의 기억을 부활시킨다. ‘철책’으로 상징되는 경계의 체험은 DMZ 안보관광 경험의 중심 특징으로 나타났다. DMZ 안보관광 경험을 구성하는 두 번째 주제는 ‘진정성 체험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이다. 하위범주는 ‘생생한 현실감을 통한 진정성 체험’, ‘현재의 역사를 생각하는 관광경험’, ‘장소의 기억을 회상하며 선택적 수용’, ‘장소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 변화’로 구성된다. 생태 경관 중심의 단편적 기억은 역사와 문화, 긍정과 부정, 과거와 현재를 포괄하는 복합적 기억으로 재구성되었다. DMZ 안보관광 경험을 구성하는 세 번째 주제는 ‘관광 주체의 자기성찰’이다. DMZ 안보관광 연구 참여자들은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관광경험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

다. 관광 주체의 자기성찰은 ‘장소 방문을 통한 과거 회상’, ‘장소와의 감정적 공감’, ‘도덕성과 행동에 대한 개인적 성찰’로 구성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DMZ 안보관광 경험을 통해 잊고 지내던 기억을 떠올리며 장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식 있는 관광 주체로 자신을 경험한다. DMZ 안보관광 경험을 구성하는 네 번째 주제는 ‘기억의 지속을 통한 정체성 확인’이다. DMZ 안보관광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집단정체성 확인은 ‘장소는 세대간 기억을 전달하는 연결고리’, ‘관광 활용을 통한 실질적 가치 인식’, ‘희생의 기억과 추모’, ‘갈등과 대립, 혼란의 경험’, ‘소속감과 자긍심’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집단기억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은 장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장소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기억과 장소, 경험의 관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그것은 DMZ 안보관광객의 관광경험이 문화적 기억에 의한 장소 체험으로, 관광경험의 과정에서 기억의 재구성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달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언급되는데 특히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결국, 안희자(2018)는 DMZ 안보관광 경험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성찰의 과정이고, 집단적 차원에서는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DMZ 안보관광은 많은 관광자원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개인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교육 장소이자 교육상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DMZ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존된 역사적, 생태적 관광 자원이기도 하지만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군사적 도발, 공습과 같은 재난적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박수지·정철(2021)은 DMZ 방문에 대한 위험지각이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DMZ 잠재관광객을 대상으로 휴전 상태로 인한 한국인의 낙관적 편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안보 불감증이 군사지역 관광에도 작용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DMZ 관광에 대한 위험지각은 DMZ 관광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DMZ 방문에 대한 안보 불감증은 위험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보 불감증은 태도와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MZ관광에 대한 안보 불감증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위험지각을 매개로 태도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결국, DMZ 관광을 통해 해당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이나 국민에게 안보의식 고취라고 하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 DMZ 관광을 안보관광과 연계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안보’와 ‘관광’을 묶어 ‘안보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탄생시켰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DMZ 관광에 대하여 안보관광이라는 상품으로 마케팅을 할 때 관광객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의 위협을 지각하는 순간 관광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보’에 어울리지 않는 ‘관광’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화관광’이라는 상품명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Ⅲ. 평화관광의 논의

1. 관광은 평화산업인가?

관광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이동 현상으로서 평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동완·이상훈 2020). 이러한 관광과 평화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관광이 평화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견해다. 둘째, 관광이 평화를 증진하는 촉매제가 아니라 반대로 평화가 전제되어야 관광할 수 있다는 견해다.

위 두 가지 견해는 관광이 평화에 대하여 독립변수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종속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견해차(見解差)라고 할 수 있다. 관광과 평화 관련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면,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가 좀 더 많은 편이다. 즉, 관광교류를 통해서 갈등지역과 분쟁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평화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관광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역할을 한다는 태도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연합(UN)이나 세계관광기구(UN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비정치적인 관광교류가 국가 간 이해와 평화 촉진을 강화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관점이다.

실제로 UN은 1967년을 국제관광의 해(International Tourism Year)로

지정하면서 “관광은 평화로의 패스포트(Tourism: Passport to Peace)”라는 슬로건을 지정했고, UNWTO는 2001년 서울 총회에서 「관광과 평화에 관한 선언문-관광을 통한 세계평화증진을 위한 실천적 행동기준(Seoul Declaration on Peace and Tourism-Practical Principles for Promoting World Peace through Tourism)」을 채택하였다. 많은 선행연구(서보혁 2018; 안지현 2018; 장동석·고계성 2014; 심상진 2007; 박창규 2003)들이 관광과 평화는 관련성이 높다는 의미로 ‘관광은 평화로 가는 패스포트(a passport to peace)’라는 UN 슬로건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여러 학술연구가 평화를 위한 관광의 적극적 증진 기능을 지지하고 있다(Farmaki 2017; Wintersteiner & Wohlmuther 2014; Haessly 2010; Var, Ap & Van Doren 1998; Yu, 1997; Khamouna & Zeiger, 1995; Akis & Warner, 1994; Zhung, 1993; Kim & Crompton, 1990; D’Amore 1988a, 1988b).

이를 ‘관광의 정식’으로 설명하면,

$$T - C - T'_{\text{prime}}$$

(T=Tourism / C=Commodity / T'=T+ Δ T / Δ =평화적 가치)

즉, 관광이 상품화되어 판매되면, 특정 분쟁 지역이나 갈등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관광의 평화적 가치가 주목받아 더욱더 해당 지역의 평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T - C - C' - T'$$

$$= < =$$

(C'=C+ Δ C / Δ =고부가가치)

결국, 관광이 평화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관광을 낳음으로써 적대 국가 간에 관광교류로 인한 잠재적 평화 내지는 평화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광의 정식’이 성립한다.

2. 평화관광의 가능성은 있는가?

그러나 반대로 관광이 평화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은 국제정치의 공허한 수사학(rhetoric)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관광이 평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Pratt & Liu(2016), Honey(2009), Burnett & Uysal(1990) 등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특정 지역에서 관광이 지닌 정치적 역할의 한계로 인하여 평화를 촉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Hall(1994, 91)도 관광이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관광이 평화의 동력이라는 생각은 국제관계와 관광의 복잡한 관계를 매우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다. 관광이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관광의 정치적 단면을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정치인이나 컨설턴트가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 하는 발언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서 관광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피잠(Pizam 1996)은 관광교류협력이 저절로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현지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고 질 높은 수준의 관광경험(quality tourist experience)을 할 수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와 같이 분쟁 지역이나 갈등지역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가능할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평화학(Peace Studies) 연구자인 갈통이 평화의 개념을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분류하여 평화에 관한 연구 지평을 확장한 것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 즉 ‘전쟁이나 가시적 폭력의 부재(absence of war or violence)’ 상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보면서 이는 단지 개인에 대한 직접적 폭력(personal or direct violence)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분석한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최악의 부정적인(negative) 상황이 잠시 보류되었을 뿐 사회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제도적 폭력, 즉 ‘구조적인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은 사회에 제도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

만,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으로 성차별, 인종차별, 빈부 차별, 신분 차별, 종교차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구조적 폭력’은 사회적 부정의(不正義, social injustice)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갈등은 ‘구조적 폭력’이 모두 제거된 상태가 바로 진정한 평화이자 ‘적극적 평화’라고 주장하였다. 즉, 개인에게 행해지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간접적인 폭력도 사라지고 갈등상태에 있던 국가나 집단이 서로 다양하게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의 관계’에 이르렀을 때가 ‘적극적 평화’라고 주장하였다(Galtung, 1969; 1996; 2002). 이러한 갈등의 평화이론은 평화와 폭력의 개념을 개인에서 사회로, 일차원적 구조에서 다차원적 구조로 확대해 평화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DMZ 관광의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국, 피잡의 지적처럼 평화를 위한 관광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적 평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화 증진을 위해 관광이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정도가 심할 때는 전쟁억지력이 강화된 군사적 우위를 점해야 관광이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한다. 물론 전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신념 아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관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관광객의 신변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부터 관광교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객 신변안전보장, 북한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정해진 코스만 따라다니는 관광상품 외에 개별 자유여행이 적어도 갖추어진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관광의 평화 촉진에 대한 기능은 제한적이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때문에 리트빈(Litvin 1998; 2020)은 관광이 평화를 조성하기보다는 평화로부터 혜택(benefits)을 받는 처지라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관광과 평화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연구와 지적은 금강산관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혜선(2021), 이재형(2018), 조한승(2016), 김난영·윤황(2014), 김정훈·김지동(2014), 전일욱(2014), 조승행(2014), 홍순직(2012, 2013), 민경배(2011), 김철원·이태숙(2008), 김난

영·조민호(2006), 김지형(2003), 강남국(2000), 김성섭, Prideaux, & Prideaux(2007)과 김용관 & Crompton(1990)의 연구는 금강산관광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조민호(2007)는 금강산관광이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미친 영향은 미진하다고 지적했고, 김성섭 & Prideaux(2003)는 금강산관광이 남북의 정치적 화해로 인하여 가능했던 결과물이지, 평화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했다.

한편, 위 두 가지 입장을 절충한 연구(고동완·이상훈 2020; Moufakkir & Kelly 2010; Kelly 2006; Tomljenovic & Faulkner 2000)도 나왔다. 관광이 평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그 영향력의 정도는 관광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광객의 유형에 따라 경험의 정도가 달라서 관광이 평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다. 그러면서 절충적 관점에서는 관광이 평화를 촉진하는 조건 없는 능력이 아니라 잠재력(potential)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관광의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과 평화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지만, 이 분야의 이론적 토대와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데다 전쟁이나 독재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 앞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어 그 연구 성과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에 관광이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안보관광 등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끊임없이 북한의 장벽을 두드리는 외교적·군사적 우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평화협상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통한 교류협력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 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도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설령 현재 상황처럼 중국과 러시아 등과 논의할 현실이 갖추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는 안중근 의사나 조봉암의 평화 사상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주요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관계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관광이 평화에 영향을 미치든, 평화가 관광을 촉진하든지 간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변수(남북한 교류 및 교역사업 분야)를 실증분석하고 활용할 관광변수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남북 간 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부정적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비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상황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냉철하고 실리를 추구하면서 관광과 평화의 관계를 논의해야 한다. 관광과 평화의 관계가 동행성이 높은 쌍방향 관계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안보관광 대신에 평화관광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IV. 평화관광으로의 전환 효과

한반도 DMZ 및 접경지역은 국내외 정세(政勢)의 변화에 따라 대표적인 안보관광 대상지였다가 평화관광 대상지로 변화하기도 하면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기도 한다(박수지·정철 2021). 따라서 김혜선(2021)의 연구처럼 한반도 평화 기조를 확산하기 위한 평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잠재관광객(potential tourist)이 안보관광보다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효용 가치가 높은 평화관광을 우선하여 정책적, 산업적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안보관광이라는 대립과 갈등의 의미보다는 화해와 교류의 의미를 지닌 평화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내세우자는 것이다.

김혜선(2021)의 연구 결과처럼 한반도 평화 기조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잠재관광객이 선호하는 평화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것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는 안보관광이 아닌 잠재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은 한반도의 평화관광을 대외적으로 확대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방한 관광 시장 확대에 이바지해야 할 때다.

정광균·김남조(2021)가 내국인의 DMZ 판문점 방문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약 40년간 DMZ 일원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관광정책 변동과정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분석 결과, 첫째, 경로 형성단계(1980년대

초~1990년대 말)의 제도변화의 방향은 안보관광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경로 확장단계(1990년대 말~2000년대 말)의 제도변화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제도변화의 방향은 2000년 1월 21일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을 계기로 안보관광 중심에서 평화, 생태관광으로 확장되었다. 셋째, 경로 강화단계(2000년대 말~2010년대 말)에서도 제도변화의 과정은 점진적이었으며, 제도변화의 방향은 2011년 5월 19일 전부 개정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의 격상, 자기 강화적 및 반응적 전개를 통해 역사·문화, 생태, 평화관광 등으로 확대, 연계 및 패턴화되었다.

또한, 최지현·이대휘(2019)의 연구 결과처럼 DMZ관광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의 동기가 지각된 가치, 몰입, 만족도 및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화관광이 DMZ 관광객의 동기, 몰입, 만족도, 행동의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 DMZ를 안보관광보다는 평화관광이라는 시각에서 추진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작되는 DMZ 관광상품을 통해 DMZ관광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MZ관광의 동기 요인들은 교육성, 가족성, 신기성, 평화 소중성 등 4가지 요인들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DMZ관광의 교육성, 신기성, 가족성, 평화 소중성의 순으로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DMZ관광의 평화 소중성, 교육성, 신기성, 가족성의 순으로 관광객의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광객이 DMZ관광에 관해 지각된 가치는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광객의 DMZ 관광 동기, 지각된 가치와 몰입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와 몰입을 통해 인지된 만족도는 행동 의도의 요인인 재방문과 추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DMZ관광의 동기는 지각된 가치와 몰입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행동 의도를 통한 지속적인 관광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최지현·이대휘(2019)의 연구는 분석했다. 위 연구결과는 DMZ관광이 이제는 안보교육 차원의 안보관광이 아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평화교육 차원의 평화관광으로의 전환을 꾀해야 하고, 관련 관광 동기 충족을 위한 관광마케팅에 활용되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에서 유일한 DMZ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강대강 군사대결의 정세를 극복하여 남북한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을 제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평화·안보·문화·역사·생태관광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DMZ지역을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DMZ관광 시장전문가, 관광종사원 등에 의한 조사를 한 김도영(2015)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김도영(2015)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DMZ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중요 사항과 DMZ관광 환경형성, 유치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DMZ 지역별 관광테마 스토리를 주제로 한 독창적인 평화관광 상품개발과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의 평화관광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DMZ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평화관광 스토리텔링 상품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관련 관공서 및 협회의 대내·외적인 평화관광 홍보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DMZ관광객 수용태세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사항은 숙박 이용, 음식 제공과 특산물 쇼핑 및 기타 쇼핑 상품 구매에 대한 문제점 파악도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DMZ관광 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특히 관련 종사원의 서비스 질 향상 및 교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용태세 개선도 제안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정책 제도개선 등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DMZ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및 DMZ 관광상품 가격의 투명성, 경쟁력 제고, DMZ 및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등 친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박근영(2020)의 연구처럼 특수성을 지닌 DMZ 및 접경지역의 관광지 이미지와 행동 의도간의 영향 관계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DMZ 및 접경지역의 관광지 이미지 중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가 행동 의도 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한 박근영(2020)의 연구 결과, 첫째, DMZ 및 접경지역 관광지 이미지 요인인 관광 매력, 관광시설, 역사 교육 중 관광 매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 세계 유일무이한 DMZ 및 접경지역 관광자원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타 관광자원과 더욱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홍보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좁은 시각의 안보관광 프로그램보다는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평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들

째, DMZ 및 접경지역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 요인인 신기성과 흥미성이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흥미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지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대가 어려운 안보관광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평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다양한 역사문화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그 지역만의 색다른 흥미와 매력을 줄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평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DMZ 및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하여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DMZ 및 접경지역의 통합 관광화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박은진(2007)도 비무장지대와 주변지역에 대한 보전과 활용에 대한 기존 논의가 보전의 당위성과 원칙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핵심지역으로 보호하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의 지정이나 세계유산 등재는 장기 실현과제로서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는 민통선지역 중심의 생태조사와 우수한 생태계의 보호,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은 단기적으로는 민통선지역, 장기적으로는 비무장지대 내부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써 기존의 안보관광 중심의 DMZ관광을 비무장 지대 생태계의 가치발견과 보전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생태관광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기본방향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개념에 따라 생태계보호를 위한 국내법적 보호조치와 용도지역 설정, DMZ 생태연구 및 교육,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보전을 해야 하는 주요 생태계와 멸종위기 종 서식처를 파악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복원을 해야 하는 훼손 지역의 파악과 복원방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위한 기반과 프로그램 계획,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요소의 도입과 구체화를 포함하여야 하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논의를 한 이응규(2012, 2018, 2020, 2021, 2022)의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DMZ 및 접경지역 전반에 생태, 평화, 안보 차원의 특구를 조성하는 것과 서해안과 동해안의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무역관광도시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미활용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무역관광도시항 조성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의 남북 양측의 항구 개발과 각 항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DMZ 및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풀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남북간 및 동서간 연계를 확대하고 생활권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 전진기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안보관광에서 평화관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DMZ 및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광자원개발 관리 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은 평화프로세스 연구(이웅규·김용완 2020)와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이웅규·박종찬(2013)의 연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는 사실상 기존의 안보관광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틀로 통일시대를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 온 불편함을 경제적 이득으로 돌려준다는 관점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평화 우선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DMZ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생태적으로 특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DMZ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관광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한, 단절된 남북한 교통망 연결방안이 필요한데, 이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도록 DMZ 평화 브리지(bridge) 설치, 공중생태통로 건설, 땅굴 등을 활용하자는 의미이다. 특히, 동해안과 서해안 접경지역 인근의 항구를 무역관광도시항으로 조성하여 바다로 연결하는 교

류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DMZ의 생태환경 그대로를 살린 풀과 나무 수목원으로 조성하여 기존의 안보관광 개발 패러다임이 아닌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평화관광 패러다임 제시가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을 대비한 DMZ 관광자원개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풀과 나무 국립식물원), 평화(유라시아 로드와 조각로드 개척), 안보(가곡문화원)의 가치를 강조한 DMZ 생태관광특구 조성, 즉 DMZ 생태테마파크 조성 방안을 제시한 이응규(2018)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DMZ관광을 안보관광 패러다임에서 평화관광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반도 생태 평화벨트라고 불리는 DMZ 일원은 안보 및 역사문화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생태환경까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조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평화라는 용어와 어울리는 앞선 논의들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안보’라는 갈등과 대립의 여지가 많은 용어가 자주 쓰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해당 지역이 ‘안보’가 가져다주는 공포감, 중압감, 두려움 등 많은 위험성을 내포한 용어가 필요한 지역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근거 없는 무력도발과 김정은 1인 체제 유지를 위한 약속 파기 등 수없이 많은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굴뚝 없는 평화산업’이라고 하는 관광산업에까지 파고들어 존재하기 힘든 ‘안보관광상품’의 탄생이라는 관광 현상도 목격하고 있다. 분단 현실을 사는 우리의 역설이기도 하다.

DMZ 관련 연구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연구했을 법한 DMZ관광 체험객들이 인지하는 참여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이 “호기심”, “특수성”, “신기성”, 교육성 “, “역사성”, “평화 중요성”, “모험성”으로 나타나 DMZ관광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제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DMZ관광에 대하여 현재 남북한 간의 강대강 군사적 대치상황을 고려하여 ‘안보관광’이라는 용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좀 더

사회적 관광 현상에 어울리는 ‘평화관광’이라는 용어 사용과 DMZ관광에 관한 사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자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 DMZ관광에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향후 DMZ관광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평화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제안한다.

2023년은 6.25 전쟁 73주년이며, DMZ가 설정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본 연구는 내국인의 DMZ 판문점 방문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약 40년간 냉전 체제 및 남북한 분단체제의 상징인 DMZ와 그 영향을 받는 민통선 지역과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DMZ 일원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역대 정부(9개 정부)의 관광정책 변동과 동 지역 내 관광자원의 개발과정이, 이제는 안보관광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보다 평화관광이라는 관점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DMZ 일원지역은 DMZ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광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학적, 국제법적, 정치·군사·안보적으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특히,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통일대비,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개발, 관광 진흥 등 다차원적으로 그 위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한 지역으로서 나름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DMZ 일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대 정부의 관광정책이 안보관광 차원에서 동 지역 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등을 개발하는 정책으로 정의되는 한 관광객의 변화 욕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생태관광자원, 평화관광자원,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으로 접근하는 데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과 동 지역 내 관광자원의 개발이 정권의 변동이나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보관광의 패러다임이 아닌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안보관광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은 2000년 1월 21일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을 계기로 안보관광 중심에서 평화, 생태관광 등의 평화관광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 생태 등을 강조하는 평화관광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착과정이 완만하고 점진적이었다. 다만, 평화관광으로의 변화의 방향에서 2011년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으로의 격상을 계기로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은 자기 강화적 및 반응적 전개를 통해 경로 확장단계보다 확대되고, 관광 자원 개발은 생태, 평화, 역사·문화 관광 등으로 확대, 연계 및 패턴화되면서 강화되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쌓아 온 평화관광 변화의 과정이 김정은 체제의 핵 무력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군사적 무력도발과 함께 사라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DMZ 일원지역의 평화관광에 관한 관광정책의 변동과 그에 따른 동 지역 내 관광자원의 개발과정을 역사적·제도적 맥락에서 이어받아 그 지속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무리 관광이 평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거나 그 역할이 모호하여도, 안보관광의 틀 안에서 김정은 북한 체제가 도발과 갈등을 조장하더라도 끊임없이 평화관광을 추구하는 실리적인 외교와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관광이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논의가 무의미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평화가 관광을 촉진하여 평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제도적 맥락도 중요하지만, 관광교류가 지속하여 평화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관광 분야 외의 남북교류협력 정책만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관광이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막연한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 달성을 위한 통합적 정책 노력과 외교적 접근방법을 총동원하여 평화관광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평화통일 기반조성 차원에서 DMZ 일원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평화 관련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내·외 정책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천혜의 역사, 문화, 인문,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DMZ와 접경지역은 ‘역사·문화·생태·평화관광 벨트’로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만큼, 통일 한국 및 동북아 관광 시대를 대비하여 동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 셋째,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안보관광의 패러다임이 평화관광 패러다임으로 전환 확장되고 있으므로 남북한 정책행위자들이 합리적 세계정세 변동과정에서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외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을 위해 환경적, 경제적, 국토균형발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

도록 지역주민의 참여 및 민간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버넌스 (governance) 구축과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용규는 백석대 관광학부 부교수다. DMZ와 섬 발전, MICE 연구자로서 관광의 관점에서 DMZ 평화와 남북교류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 『관광콘텐츠미디어 홍보론』(대왕사, 2017), 『문화 관광론』(대왕사, 2018), 『디지털 시대의 MICE산업론』(대왕사, 2022).

참고문헌

- 강남국. 2000. “남북통일을 향한 관광교류의 전개방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5(1), 88-114.
- 경기도. 2021. 『경기도 DMZ 일원 발전 종합계획(2021~2025)』. 경기: 경기도.
- 고동완 · 이상훈. 2020. “남북교류활동으로 본 금강산 관광과 한반도 평화의 쌍방적 관계.” 『관광학연구』 44(3), 9-29.
- 김난영. 2010.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 · 생태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평화학연구』 10(3), 55-75.
- 김난영 · 윤황. 2014. “금강산 관광 위험인지와 관광의도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29(1), 203-229.
- 김난영 · 조민호. 2006. “금강산 관광개발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공헌도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0(3), 51-70.
- 김도영. 2015. “스토리텔링을 통한 DMZ 관광 상품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10(1), 83-93.
- 김도영. 2016. “DMZ 관광의 정서적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6(3), 55-69.
- 김정훈 · 김지동. 2014. “DMZ 평화적 이용의 세계화 전략: 세계평화공원화 · 국제관광자원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0, 261-279.
- 김지형. 2003. “[5주년 맞은 금강산관광] 금강산관광 5주년, 우리에게 금강산 관광은 무엇인가-남북 화합의 상징이자 견인차, ‘우리는 평화를 얻었다’.” 『민족 21』 12월, 84-87.
- 김창환. 2020. “베트남 DMZ 관광의 사례와 한반도 DMZ 평화관광의 시사점.”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0(2), 27-41.
- 김철원 · 이태숙. 2008. “남북관광 협력과 통일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금강산 관광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1), 67-96.
- 김혜선. 2021. “한반도 평화기조 확산을 위한 평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선택 실험법(CE)을 이용한 선호도와 효용가치 추정.” 『관광연구저널』 35(5), 67-82.

- 김환용. 2022. “북한 ‘핵 무력 법제화’ 유일체제 모순 극명 노출...수령 안위 위해 전 주민 핵 참화 감수.” 『VOA Korea』 (9월 14일). <https://www.voakorea.com>(최종검색일: 2022/10/1).
- 박근영. 2020. “DMZ 및 접경지역 관광지 이미지요인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9(7), 159-170.
- 박수지 · 정철. 2021. “관광위험지각과 안보불감증이 관광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DMZ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3(1), 149-168.
- 박숙진 · 김태현. 2014.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병영체험 및 안보관광 개발-관광정책-안보인식 경합모델.” 『동북아관광연구』 10(3), 23-42.
- 박은진. 2007. “DMZ 평화생태포럼;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방안.” 『북한학연구』 3(2), 35-66.
- 박창규. 2003. “관광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관광자원 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여행학연구』 18, 149-165.
- 서보혁. 2018. “피스 투어리즘(Peace Tourism)과 금강산 관광사업.” 『국제정치논총』 58(2), 73-107.
- 신애경 · 이혁진. 2022.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인천 강화군, 경기 파주시, 강원 철원, 양구,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국사지리지학회지』 32(1), 84-95.
- 신용석. 2011.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대비한 제도적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향.” 제69차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월 15일), 제주: 903-914.
- 심상진. 2007. “남북관광이 국내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정책』 30, 38-42.
- 심성우 · 송학준 · 이충기. 2009. “비무장지대 외래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가치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8(3), 191-210.
- 안지현. 2018. “관광은 어떻게 남북 분단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가: 경계와 사이공간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018년 추계종합 학술대회 (11월 17일), 춘천: 21-30.
- 안희자. 2018. “디엠지(DMZ) 관광객의 다크투어리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수경. 2015. “DMZ 지역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 양구지역을 중심으로.” 『관

- 광레저연구』 27(10), 421-437.
- 이웅규. 2012. “동북아시아대의 평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관광의 역할.” 『관광연구저널』 26(5), 95-114.
- 이웅규. 2018. “DMZ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2(2), 77-127.
- 이웅규. 2020. “경기관 DMZ 내 평화적 관광자원의 개발 방안: ‘DMZ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접경지역통일연구』 4(1), 101-152.
- 이웅규. 2021. “DMZ의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을 위한 규범 정립 연구.” 『접경지역통일연구』 5(1), 9-38.
- 이웅규. 2022. “정치적 상상력을 활용한 메타버스 DMZ 관광 구축 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6(2), 93-119.
- 이웅규 · 김용완. 2020. “남북 관광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UN 미국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평화 프로세스.” 『한국보훈논총』 19(3), 39-71.
- 이웅규 · 박종찬. 2013.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관광의 평화적 가치 연구.” 『호텔관광연구』 15(3), 109-126.
- 이소현 · 김병현. 2015. “안보 관광산업에 대한 연구.” 『관광진흥연구』 3(1), 67-83.
- 이재형. 2018.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금강산관광 재개 인식 연구.” 『관광레저연구』 30(12), 77-92.
- 장동석 · 고계성. 2014. “북한관광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 『관광연구저널』 28(7), 75-86.
- 전일욱. 2014. “금강산관광의 의미와 재개 해법.” 『한국동북아논총』 71, 227-244.
- 정광균. 2021.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의 변동과 관광자원개발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광균 · 김남조. 2021. “DMZ 일원지역에 대한 관광정책 변동의 경로의존성 분석.” 『관광연구논총』 33(3), 157-180.
- 정대영 · 한석호. 2021.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모형 개발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1-142.

- 조승행. 2014. “MICE 연계 남북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금강산관광과 전시산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9(5), 441-456.
- 조한승. 2016. “평화 매개자로서 국제관광의 개념과 대안: 이해관계자 맥락과 국제기구의 참여.” 『국제정치논총』 56(1), 47-79.
- 최지현 · 이대휘. 2019. “DMZ 관광동기가 지각된 가치와 몰입,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연구저널』 33(2), 77-94.
- 홍순직. 201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DMZ 경제적 활용 방안.” 『통일경제』 2012(2), 52-65.
- 홍순직. 2013. “금강산관광 재개 필요성과 제언.” 『통일경제』 2013(2), 36-45.
- Akis, S., & Warner, J. 1994. “A Descriptive Analysis of North Cyprus Tourism.” *Tourism Management* 15(5): 379-388.
- Blanchard, L. A., & Higgins-Desbiolles, F. 2013. *Peace through Tourism*. Routledge.
- Burnett, G. W., & Uysal, M. 1990. “On the Nature of Peace in Relationship to Tourism: Three cases.” *The Tourist Review* 45(1): 2-7.
- Cho, M. H. 2007. “A Re-examination of Tourism and Peace: the Case of the Mt. Gungang Tourism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urism Management* 28(2): 556-569.
- D’Amore, L. J. 1988a. “Tourism — the World’s Peace Indust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1): 35-40.
- D’Amore, L. J. 1988b. “Tourism — a Vital Force for Peace.” *Tourism Management* 9(2): 151-154.
- D’Amore, L. J. 1990. “Tourism: the World’s Peace Industry.” *Recreation Canada* 48(1): 24-33.
- D’Amore, L. 2009. “Peace through Tourism: the Birthing of a New Socio-economic Order.” *Journal of Business Ethics* 89(4): 559-568.
- Farmaki, A. 2017. “The Tourism and Peace Nexus.” *Tourism Management* 59: 528-540.
- Galtung, J.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 Galtung, J.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Vol. 14). London: SAGE.
- Galtung, J. 2002. "Conflict, War and Peace: a Bird's Eye View." Galtung, J, Jacobsen, C.G., & Jacobsen K. F.B. (eds). *Searching For Peace: The Road to Transcend*: 3-15. London: Pluto Press.
- Haessly, J. 2010. "Tourism and a Culture of Peace." *Tourism, Progress and Peace*: 1-16.
- Hall, C. M. 1994. *Tourism and Politics: Policy, Power and Place*.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Honey, M. 2009. *Tourism in the Developing World: Promoting Peace and Reducing Poverty* (Vol. 23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Kelly, I. 2006. "The Peace Proposition: Tourism as a Tool for Attitude Chang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Peace Through Tourism(IIPT)*. March, Occasional Paper Series No.9: 1-22.
- Khamouna, M., & Zeiger, Z. B. 1995. "Peace through Tourism." *Parks & Recreation* (Arlington) 30(9): 80-86.
- Kim, Y. K., & Crompton, J. L. 1990. "Role of Tourism in Unifying the Two Korea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3): 353-366.
- Kim, S. S., & Prideaux, B. 2003. "Tourism, Peace, Politics and Ideology: Impacts of the Mt. Gungang Tour Project in the Korean Peninsula." *Tourism Management* 24(6): 675-685.
- Kim, S. S., Prideaux, B., & Prideaux, J. 2007. "Using Tourism to Promo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2): 291-309.
- Litvin, S. W. 1998. "Tourism: The World's Peace Industr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1): 63-66.
- Litvin, S. W. 2020. "Review and Commentary Tourism and Peace: a Review and Commentary." *Tourism Review International* 23(3-4): 173-181.
- Moufakkir, O., & Kelly, I. (Eds.). 2010. *Tourism, Progress and Peace*. Cabi.
- Pizam, A. 1996. "Does Tourism Promote Peace and Understanding between

- Unfriendly Nations?.” Pizam, A. & Mansfeld, Y.(eds). *Tourism, Crim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sues*: 203-213.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Pratt, S., & Liu, A. 2016. “Does Tourism Really Lead to Peace? A Global 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1): 82-90.
- Tomljenovic, R. & Faulkner, B. (2000). “Tourism and World Peace: a Conundrum for the 21st Century.” Faulkner, B., Moscardo, G., & Laws, E. (eds). *Tourism in the 21st Century: Lessons from Experience*: 18-33. London: Continuum.
- Var, T., Ap, J., & Van Doren, C. 1998. “Tourism and World Peace.” *Global Tourism* 2: 45-47.
- Wintersteiner, W., & Wohlmuther, C. 2014. “Peace Sensitive Tourism: How Tourism can Contribute to Peace.” *International Handbook on Tourism and Peace*, 31-61.
- Yu, L. (1997) “Travel between Politically divided China and Taiwan.”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 19-30.
- Zhuang, G. (1993) “Tourism across the Taiwan Straits.” *Tourism Management* 14: 228-231.
- Yu, L. 1997. “Travel between Politically Divided China and Taiwan.”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1): 19-30.
- JTBC. 2022. “다크투어.” <https://tv.jtbc.co.kr/darktour>(최종검색일: 2022/7/13).
- <접경지역지원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최종 검색일: 2022/8/11).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최종검색일: 2022/8/11).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aradigm Shift in DMZ Tourism: Focusing on Reviewing Prior Research on ‘Security Tourism’ and ‘Peace Tourism’

Lee, Woongkyu*

This article is an investigation into the possibility of DMZ peace tourism on the Korean Peninsula in light of the recent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shifting interests of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scholars who have tried to change the paradigm from security tourism to peace tourism.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a paradigm shift is sought to look at DMZ tourism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tourism. The term ‘security tourism’ can provoke the North or provide a pretext for provocation. This study demonstrates why a paradigm shift towards peace tourism is necessary, while analysing research in the field of security tourism.

Key Words: DMZ Tourism, Security Tourism, Peace Tourism, Paradigm Shift, Negative Peace

논문투고일: 2022. 10. 26.

논문심사일: 2022. 11. 11.

게재확정일: 2022. 11. 21.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Baek Seok University,
unikorea2024@naver.com